

# 익산시 '대기 환경 개선'

### 도내 미세먼지 농도 1위에서 5위로 크게 개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전기차·이륜차 구매 지원

익산시가 대기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며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도내 최고 수준이었던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과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를 비교한 결과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도내

최고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익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국외의 영향을 70~80% 받는 지역으로, 약 75 $\mu\text{g}/\text{m}^3$  정도의 최악의 황사가 올해 3월에만 2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5번째 순위를 나타냈다.

이는 익산시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관련 사업 물량을 지난해 대비 150% 이상 확보하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총 198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1톤 LPG 화물차 구입지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6천대 이상 줄여나가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948대 구매를 지원하고 전기 충전소 15곳과 지역 최초의 수소 충전소를 이달 말에 준공해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300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마스크 보급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살수차 운영 등 시민 체감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식품영양학과(대학원) 식품분석및영양학실험실(지도교수 유현희) 소속 이주영 학생이 2021년 (사)한국생활과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 군산대 '우수 포스터상' 수상

### 식품영양학과 이주영 대학원생, 하계연합학술대회

군산대 식품영양학과(대학원) 식품분석및영양학실험실(지도교수 유현희) 소속 이주영 학생이 2021년 (사)한국생활과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 학술대회는 한국생활과학회 주최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과 생활과학'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주영 학생은 '토마토의 종류와 데

치기 처리에 따른 회분 및 무기질 함량 비교'를 주제로 e-포스터를 발표하여 좋은 성과를 냈다.

(사)한국생활과학회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생활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83년 창립되었으며, 200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개정동 '웃음꽃 피는 해바라기' 식재

농로길을 아름다운 해바라기 거리로 조성한 단체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개정동은 군산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규)가 지역사회 연계 사업 일환으로 개정동 관내 농로길에 '아름다운 해바라기 거리'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이행대상자,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개정동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고석태 고문(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은 "이번 해바라기 식재를 통해 우리동네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가꾸게 되어 보람적이다. 식재된 꽃이 향후에도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사를 추진하는데 물질적인 지원해 준 개정동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현숙 개정동장은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화사한 해바라기 꽃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정량하고 쾌적한 개정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응포관광지' 조성 민간투자 탄력

###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응포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시는 21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과 응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 미개발 부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과 왕덕봉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 대표, 유재구 시의회 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 기업컨설팅의 노하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관광 상생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익산 응포관광지(3지구)·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을



익산시가 응포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모를 통한 우선 협상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관광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응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은 10여 년간 미개발지구로 방치됐던 28만

3,000여㎡ 규모의 부지에 가족 단위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익산시 관광역점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오는 8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공공일꾼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공공행정체험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여름과 겨울 연 2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학생을 파견해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방학 중

집중학습 지도와 개별 멘토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136명으로 이 중 50%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특별 선발하며, 나머지는 일반선발로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2년제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군산시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군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자

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아동복지시설과 시청 각 부서에 배치해 기초학습 지원활동,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보조 등 다양한 직무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기타 대학생 공공일꾼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청년일자리계(454-438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모범 국가유공자 9명 표창 수여

군산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모범 보훈대상자 9명에게 감사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 확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표창은 9개 보훈단체로부터 9명을 추천받았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수상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익산시장 '익산외국어 교육센터' 방문 소통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이 익산외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소통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21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박철원 부의장과 함께 익산외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내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센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원식 대신 현장에서 시설을 확인하고 센터 관계자와 함께 학생·시민 중심의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방역 일지리를 포함한 센터 방역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도 했다.

센터는 2,115㎡, 3층 규모로 본관 1동·체육관·식생활관·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공간인 본관에는 북카페·블록존·지구촌여행관·요리체험실 등이 들어섰으며 이곳에서 체험 중심의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